

## 엔젠바이오, 일반청약 경쟁률 1,502.40대 1... 기술특례기업 중 1위 기록

▶ 청약증거금 5조 1,406억 원 기록... 12월 10일 코스닥 시장 입성

<2020-12-02> 정밀진단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(대표이사 최대출)가 일반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.

엔젠바이오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1,502.40대 1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. 일반 청약증거금은 약 5조 1,406억 원이 몰렸다.

경쟁률만 놓고 보면 상장한 기술특례기업 중 역대 1위 기록이면서 올해 IPO 공모주 대어였던 카오게임즈(1,525:1)과 비슷한 수준이다.

엔젠바이오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14,000원으로 확정했다. 이번 공모를 통해 약 342억 원을 조달하며, 공모자금은 ▲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투자 와 GMP 생산시설 확대 및 설비투자 ▲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운영자금 ▲동반진단 제품 개발과 임상에 쓰이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.

이번 IPO를 계기로 엔젠바이오는 정밀진단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분야로 확장을 본격화하고, 시장 잠재력이 큰 미국 시장 공략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.

엔젠바이오 최대출 대표는 "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플랫폼 사업경쟁력과 성장성에 관심을 보내준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"며 "상장 후 글로벌 대상으로 질병 예측과 예방, 맞춤 의료 실현을 견인하고 정밀진단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포부를 전했다.

한편, 엔젠바이오의 상장 후 시가총액 규모는 공모가 기준 약 1,710억 원으로 오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.